다산포럼

지식인과 정치

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영국진보정치의 거목 토니 벤이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25세 때 최연소로 하원에 진출하여 50여 년의 최장수 하원의원을 지냈다. 수차례 최다득표로 당 집행부에 선출되었고, 당 의장과 두 번의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18선의 긴 정치 여정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회주의적 신념을 타협하지는 않았다.

벤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돼 유튜브에는 그를 회고, 추모하는 동영상이 1백여 개 가까이 올라왔다. 주요 일간지와 BBC는 연일 헌사와 특집을 쏟아냈다. 캐머런 보수당수상을 비롯한 좌우의 전·현직 정치인들은 앞다퉈 애도를 표시했다. 영국사회가 한 좌파 정치인에게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인물 중심의 영국노동당사 쓰기를 미뤄오던 나로서도 감회가 컸다.

정치인 벤과 관련된 일화는 넘친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상원의원이던 아버지가 죽자 장남에게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작위를 영원히 포기하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승소하여 상원의원이 되는 것을 피했다. 10여 년 전에는 "정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제도권 정치를 떠났었다. 그는 은퇴 후 영국 전역을 돌며 대담과 강연을 통해 정치 밖의 정치를 이어나갔다.

"헌신된 사회주의자 벤", "세금을 올려라", "전쟁에 반대한다" 등 이젠 유물이 된 그의 선거포스터들에 담긴 구호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총선 패배 때마다 좌파몰이를 해대던 노동당 지도부의 위선을 질타하며, 사회주의의 희망만은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낡고 치명적인' 신조들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서남부의 부유한 도시 브리스톨에서 변함없이 당선됐다.

벤 자신이 수많은 글을 남긴 사상가요 이론가였지만, 영국정치사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지식계의 논쟁을 주도했던 '지식인 정치인'들이 넘친다. 그들은 정당정치가 요동하고 정책의 틀이 바뀔 때마다 이론과 사상의 뒷심을 대기도 하고, 회고록과 일기, 자서전 등을 출간하여 출판계를 달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령 벤이 정치에 입문하며 쓰기 시작한 방대한 양의 '벤 다이어리'는 영국 현대정치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필독서로 통한다. 물론 이 외에도 학문적 축적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정치권 밖에서 정치에 관여하고는 소임이 끝나면 학문탐구라는 본령으로 돌아가는 공적 지식인들의 숫자는 끝이 없다.

누구나 정치를 욕하면서 누구나 정치인이 되고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치의 지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겠지만, 그 와중에 정치인의 자질과 정치의 품질은 날로 피폐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덩달아 지식인의 분주함은 단연 돋보인다. 그러나 사적 지식인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공공선에 투신하는 공적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정치 진입의 변은 거창했지만 이렇다 할 기여없이 사라진 지식인들의 몰골이 선명하다. 분명한 신념과 이를 뒷받침할 지적 체계로 무장한, 그리하여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와 공공선에 투신할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 오웰은 글 쓰는 동기가 "불의에 대한 인식"과 "편듦의 정서"에 있다고 고백한 바 있지만, 진영의 명료한 대치선은 어디에도 없는데 기이하게 진영논리만 판치는 곳이 한국정치이다. 정치인들이 설익은 지식인을 조급하게 활용하려니, 정치와 지식의 필요가 맞아 떨어져도 양쪽 모두 현장의 고통과 연민에서 유리된 채, 대책 없는 피상성에서 허우적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 지옥 편 맨 앞에는 천국과 지옥에서 모두 버림받은 영혼들이 배치돼 있다. 끝없는 행렬의 벌거벗은 사람들이 쉼 없이 달려드는 벌떼로 인해 피고름으로 범벅된 채 앞에서 달리는 무심한 깃발을 전속력으로 뒤쫓아 간다. 단테의 콘트라파소는 이들이 지상에서 중립과 객관을 표방하며 어느 편(깃발)에도 속하기를 거부한 채 실은 기회주의적 안위만을 도모했음을 보여준다.

불의와 고통이 편만한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의 무지를 천연시키며 정략적 임기응변에만 분주한 정치인들, 권력 주변을 서성대다가 때만 되면 유력자를 쫓아다니는 지식인들, 모호하고 뻔한 훈수로 한국정치를 농하는 근엄한 학자들이 여기에 속할지 모른다.

문득 8~9년 전 에딘버러의 페스티벌 극장에서 있었던 벤의 강연이 떠오른다. 2천여 청중들에게 그가 처음 던진 말은 이랬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말을 염탐하러 온 사람이 있다면, 가운데 통로(중도)나 우측 통로(우익) 아니면 '제3의 길'로 조용히 나가주시길 바란다."

당시 블레어 노동당정부에 대한 촌철의 비판을 특유의 유머로 쓰다듬으며 말문을 열던 노 정치인의 기개와 열광하던 보통사람들의 환호가 각별히 기억되는 오늘이다.

기고

'행복 전남'…복지가 정답이다

서영진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세상이 팍팍하다. 우리의 앞날이 '미세먼지'로 가득해 보인다. 지금도 문제인데 우리들 후손에겐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학자들은 지난 20세기는 '전쟁과 평화의 시대'였고, 이제는 '평화와 복지의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높은 고령화율과 낮은 출산율이 앞서는 나라다. 국가미래에 빨간불이 깜빡인다.

전남은 더 그렇다. 타 지역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다. 모든 분야가 전국평균의 약 2배다. 65세 노인인구는 전국 12.2%에 비해 19.6%인 37만 5000여 명, 등록장애인은 도민전체의 7.6%(전국 4.9%)인 14만 6000여 명이나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수요가 한없다. 대응해야 할 내용도 각각이다.

전남도는 올해 예산의 33%인 1조 9100억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집행기관, 복지수요자, 도민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 살고 싶은 전남, 살기편한 고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해답은 하나다. 복지를 도민생활 중심에 놓고 '생산적 복지'로 발전의 물길을 터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시민단체 모두 '복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시대흐름이 평화·인권을 구체화시키는 길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한다. 복지는 인권이고, 생명이며, 평화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복지다. 기업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지만, 행정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주민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복지는 행정만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살고 활동하는 민간인·기업 등 구성원 모두 함께 꾸려가는 것이 정설이다.

지역복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창조'되어야 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실정은 다르다. 공장지역, 산간지역, 교육과 문화중심지역, 행정과 상업지역 등도 그렇다. 그래서 지역마다 실정에 맞는 복지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최근 전남복지재단이 정식 출범했다. 복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와 연계시켜 '생산복지'를 만들어 내는데 큰 뜻이 있다. 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아동과 청년들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에 참여해 '당당한 현역'으로 활동케 하고, 건강한 주민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콘텐츠 개발과 제안에 주력할 것이다.

'인생100세 시대'에 조기 은퇴해서 방황하는 이들의 경륜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재투입해 편안한 노후를 꾸리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노력해 온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기관의 활동에 동반자가 되어 복지의 시너지효과와 체계화를 도모할 생각이다.

이제 복지는 사회적 약자도 '시대의 동반자'라는 의식을 모두에게 심어 더불어 사는 체계를 갖추고, 비장애인도 함께 누리는 복지 콘텐츠를 만들어 실천할 때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에서, 모든 주민들이 '삶의 보람'을 구가하는 '보편적 복지'시대로의 방향을 찾아 '행복전남-살고 싶은 전라도'의 지혜창고가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양동옥의 S 스토리

부모의 궁금증 (2)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유치원에 다녀온 4살짜리 남자아이가 옷을 훌러덩 벗더니 베란다에 놓아둔 트램펄린(스프링이 달린 사각형 또는 육각형 모양의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는 놀이 기구) 위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젖혀 밖을 내다보고 펄쩍펄쩍 뛰며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요즘 부쩍 고추를 만지고 놀아서 야단을 쳤는데, 트램펄린에서 뛸 때 고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있는지 그 놀이를 자주 합니다. 우리 집에 노출증 아이가 산다고 사람들이 흉볼까 봐 겁이 날 정도입니다. 또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배운 후 '남자는 고추가 있는데, 여자는 왜 고추가 없어?'라는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줘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자위행위는 성의 눈을 뜬 청소년이나 성인, 특히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개인차가 있지만, 두 돌 무렵부터 시작해서 네다섯 살 무렵까지의 유아들이 자신의 성기(性器)를 만지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 이것을 '유아 자위행위'라고 한다.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의 고민 중 상당수가 유아 자위행위와 관련된다. 목욕을 시키려고 아이를 욕조에 앉혀 놓으면 성기를 만지고 놀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던 아이가 성기를 만지는데 몰두해 있거나, 방에 혼자 들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침대 모서리에 성기를 비비고 있거나, 재우려고 이불을 덮어주면 이불 속에서 성기를 만지작거리는 등 그 행동도 다양하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유아 자위행위의 시작은 신체 탐색과 맞물린다. 부모에게 의존해서 먹고, 자고, 싸는 생존 본능의 시기를 지나면 유아는 근육과 신경기관, 운동기관에 힘이 생겨 신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유아는 이 능력을 최초로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는 데 사용하며 점차 자신의 주변 외부 세계로 확장한다. 유아는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다 우연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되고 이때 성인의 성적 쾌감과 유사한 기분 좋은 느낌을 받게 된다. 성기를 만지작거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매우 진지하면서도 묘한 웃음을 머금고 있는데, 부모가 이 광경을 보게 되면 황당함에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된다.

특히 유아기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데, 성기를 만지는 것 역시 즐거움을 주는 놀이로 인식하여 반복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유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일명 노출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성적 놀이가 부모로부터 저지당하지만, 부모의 관심이 일정 시간 벗어나면 성적 놀이는 다시 시작된다. 그 시간은 주로 혼자 노는 시간이다. 부모는 성기를 만지고 노는 아이에게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지 말고, 유아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유아 자위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기를 만지고 노는 아이가 다른 놀이에 관심을 두도록 부모가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 놀이하면 재미있겠는데, 같이 놀까?" 아이는 부모랑 같이 노는 것이 더 즐거워서 쉽게 관심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기를 만지고 노는 행동이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그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아이가 그 행동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있다는 것을 공감해주며 그 행동으로 인한 부모의 불편함에 관해 설명한다. "거기 만지니 기분이 좋은가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옷을 입을까? 그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속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는 이유는 뭘까? 그곳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아서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손으로 계속 만지면 그곳이 아플 수도 있고 나쁜 병균들이 들어가 소중한 곳을 아프게 할까 봐 걱정이구나. 그리고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것이 너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겠지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은 아주 불편해한단다. 사람들이 서로 소중한 곳을 보여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란다."

유아기 성적 놀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 특히 이성 부모의 성기를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기를 만지는 놀이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성 부모와 함께 목욕하는 아이는 장난스럽게 이성 부모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지는데, 그러한 행동 역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곳을 함부로 만져서 불쾌감을 준다고 알려줘야 한다. 또한,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거나 대소변을 보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기 차이를 관찰한 아이들은 그 차이에 관한 질문을 쏟아낸다. 그런 질문에는 '남자는 고추가 있고 여자는 고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고추를 가지고 있고 그 모양이 다르다는 것과 그 모양에 따라 소변이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너와 나의 몸의 차이와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그 배움에는 부모에겐 마냥 지루하기만 한, 아이에겐 매번 새롭기만 한 반복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社說

전남지역 아웃렛 유치, 지역 상권 영향 없나

지자체와 유통기업들이 전남지역 주요 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대형 쇼핑센터인 명품 아웃렛 건립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은 호남·충청권 첫 입점이라는 프리미엄을 선점하기 위해 '아웃렛 전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최근 신세계사이먼과 1100억 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웃렛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의향서를 체결했다. 신세계사이먼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30여 만㎡의 부지에 매장면적 3만㎡ 이상의 쇼핑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엑스포 도시인 여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박람회장 재활용 방안의 하나로 홍콩의 초저가 명품 아웃렛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광양시는 광양읍 덕례리 7만6583㎡의 부지에 아웃렛을 건립하기 위해 LG패션과 논의 중이다. 복합문화공간인 'LG패션 아웃렛'은 이르면 내년 초 착공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관광의 한계로 지적돼 왔던 '관광형 쇼핑시설' 부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와도 전남에는 쇼핑·숙박시설이 부족해 지나가는 관광지에 그쳐 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이들 시설이 일자리 창출과 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초대형 아웃렛이 들어서면 지역 유통업계의 또 다른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잇단 진출로 골목상권이 위축되는 예를 우리는 수없이 봐 왔지 않은가.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형 아웃렛이 여러 도시에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역행정 측면에서 전남도가 교통정리에 나설 필요도 있다.

가족 장애·생활고가 부른 '소년가장' 자살

장애 부모와 조부모를 둔 중학 3학년생이 짓누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27일 밤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생활형편을 비관한 A군(15)이 투신해 숨졌다.

A군은 할아버지·할머니에 아빠·엄마, 동생까지 5명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뇌병변 장애인이었고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아버지와 엄마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동생도 돌봐야 하는 처지였다.

방과 후에는 먹거리를 챙기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생활고도 버거운 짐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적은 돈으로는 6인 가족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가족의 병과 생활고는 어린 중학생의 어깨를 짓눌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3월 26일 서울 송파구에서의 세 모녀 자살과 지난달 13일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서 아들(5)의 발달장애를 비관한 부모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등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고,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수요를 감당할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서비스 제도가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병마에, 생활고까지 겪고 있어도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외면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제 더 이상 후진적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정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빈민층이 폭넓게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와 절차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無等鼓

어벤져스

중학교 3학년이던 1980년 3월 어느 일요일, 신학기를 맞아 교실 대청소를 위해 내키지 않은 등교를 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 낯선 탑차들이 여러 대와 있었다. 알고 보니 당시 막 뜨던 코미디언 이주일을 주연으로 내세운 '평양맨발'(감독 남기남)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찍기 위한 차량이었다.

까까머리에 검정교복을 입은 채 영화촬영 현장을 기웃거리던 우리들은 즉석에서 한 장면에 엑스트라로 캐스팅됐다.

먼저 일본인 선생이 복도에서 물구나무를 선 이주일의 양발에 물양동이를 올려놓는 벌을 주는 장면(물론 실제 물구나무 벌은 대역이 빈 양동이로 했다)이 촬영됐다. 이어 우리는 교실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를 보며 깔깔대다 일본인 선생이 흘깃하자 급히 숨는 장면에 몇 초간 등장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대사로 스타덤에 오른 그 답게 카메라 옆에서 익살스런 표정을 지으며 우리의 웃음을 유도했다.

1994년에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 촬영현장 취재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현 금곡영화마을)를 찾았다. 당시 찍던 장면은 국군이 주민들에게 마을을 비우게 하고 소개(疏開)시키는 신이었다.

임 감독은 마을 입구 논에 카메라를 세팅해 놓은 채 무한정 기다렸다. 전봇대가 곳곳에 서있는 마을 쪽에는 그늘이 지고, 마을 입구 쪽 수백 년 느티나무 옆 초가 세트 쪽에는 햇볕이 드는 광선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결국 3~4시간이 지나서야 기다리던 최적의 빛이 갖춰지자 임 감독의 '레디 고!' 사인이 떨어졌다. 불타오르는 마을을 배경으로 남부여대(男負女戴)한 주민들이 피난 가는 장면이 NG없이 순식간에 촬영됐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Avengers) 2' 촬영이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마포대교에서 시작됐다. '로마의 휴일'의 이탈리아 로마, '노팅힐'의 영국 노팅힐, '중경삼림'의 홍콩, '러브레터'의 일본 오타루(小樽),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의 푸켓 제임스 본드 섬처럼 좋은 영화 촬영지는 영화 팬들의 가슴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영화 '어벤져스 2'에서 우리나라와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자못 궁금하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